

1번 버나디나·3번 김주찬...잘할 때까지 간다

KIA 타순고민 정면돌파

KIA 김기태 감독이 1·3번 고민 해결을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호랑이 군단'은 지난 4월14일을 시작으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4번타자 최형우를 중심으로 강화된 화력을 앞세워 1위 팀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 공격의 포문을 열어야 하는 1번 그리고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하는 3번 자리다.

2017시즌 투쟁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1·3번은 올 시즌 KIA 공격의 막강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자리다. 지난 시즌 1번 고민에 시달렸던 KIA는 외국인 선수로 톱타자 고민을 끝낸 것 같았다.

'빅리거' 버나디나가 1번 적임자였다. 버나디나는 스프링캠프에서 빠른 발을 바탕으로 공·수·주에서 실력을 발휘하며 고민 없는 1번 타자였다. 여기에 선구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원하게 공격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됐다.

3번도 고민 없는 자리였다. 지난 시즌 본격적인 장타 실력까지 선보이면서 팀의 해결사로 역할을 했던 김주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형우가 4번 타자로 목격하게 자리를 지켜주면서 3번의 활약에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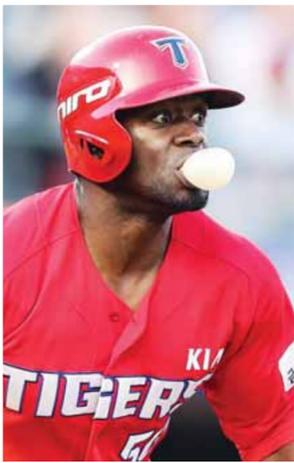
하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버나디나는 16일 경기 전까지 36경기에서 나와 132타수 31안타로 0.235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홈런 하나 포함 12타점을 만

버나디나

출루율 낮아 빠른 발 활용 못해
삼진 27차례 당할 때 볼넷 9개

김기태 감독 "지켜봐 주는게 필요...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



들었고, 10차례 베이스를 훔치며 kt 이대형과 도루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출루율이 0.295에 그치고 있다.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주찬

시즌 1할대 타율 '악몽의 봄'
삼진 15개·볼넷은 4개 뿐



새로운 스트라이크존에도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한 모습이다. 9개의 볼넷을 골라낸 버나디나는 27차례 삼진을 당하고 돌아왔다. 김주찬에게도 악몽의 봄이다. 고공행진

안방 1위 내놔!

LPGA 18승 박인비 두산 매치플레이 출전

국내 대회서 준우승 5번 등 '톱10'만 11차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18승을 올렸고 올림픽 금메달까지 더해 '골든슬램'을 달성한 박인비는 아직 국내 대회 우승이 없다.

일본에서도 4차례 정상에 올랐지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대회 우승 트로피는 유독 인연이 없다. 국내 대회 출전 횟수도 적지 않다. 작년까지 9년 동안 16차례 국내 대회에 출전했다.

우승 기회도 많았다. 준우승 5번을 포함해 11차례 톱10 입상이 말해주듯 우승 문턱에서 아쉽게 발길을 돌린 적이 여러 번이다. 코스레코드 경신이 세 번이고 출원도 두 번이나 기록하는 등 경기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

박인비가 올해 첫 국내 대회에 출전한다. 박인비는 17일부터 닷새 동안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장에서 열리는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 나선다.

지난해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실전 리허설 삼아 참가했던 삼다수 마스터스 이후 9개월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출전했던 대회와 달리 이 대회는 매치 플레이 방식이다. 상위 랭커가 무명 선수에게 덤미를 잡히는 이변이 자주 벌어지는



게 매치 플레이다. 예전 기량을 되찾았다지만 박인비의 국내 무대 첫 우승을 낙관할 수 없는 이유다.

박인비는 "부상에서 벗어나 컨디션과 스윙 모두 좋다. 체력이나 정신력도 준비되어 있어 기대가 크다"며 "예측 불가의 매치 플레이지만 최대한 오래 남아 국내 팬과 가능하면 오래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계 1위 내놔!

2위 유소연, 리디아 고 추격...킹스밀서 쭈타누칸과 격돌

올 LPGA 대회 모두 '톱10'...평균타수 1위 최고 기량

미국프로골프(LPGA)투어 한국 자매 군단의 새로운 리더 유소연이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놓고 리디아 고(뉴질랜드), 에리아 쭈타누칸(태국)과 정면 대결을 벌인다.

유소연은 오는 19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의 킹스밀 리조트 리버코스(파7)에서 열리는 LPGA투어 킹스밀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지난 1일 텍사스스אות을 마친 뒤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를 건너뛴 유소연은 무려 17일 동안 달콤한 휴식을 취하며 이 대회를 준비했다.

상급랭킹 1위를 달리는 유소연은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시즌 두 번째 우승과 함께 세계랭킹 1위 등극을 노린다.

유소연은 세계랭킹 2위지만 1위 리디아 고와는 간발의 차이다. 또 3위 쭈타누칸과 차이도 갓일 한 장이다.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유소연이나 쭈타누칸 누구도 리디아를 제치고 세계랭킹 1위가 된다.

세계랭킹 1위 각축전에서 흐름은 유소연 쪽이다.

유소연은 올해 7차례 대회에서 한 번도 톱10 밖으로 밀린 적이 없을 만큼 경기력이 안정됐다. 그린 적중률 1위, 평균



타수 1위가 말해주듯 이미 유소연은 투어 최고의 기량이다. 7차례 톱10 입상 중에는 메이저대회 우승도 들어있다.

쭈타누칸도 만만치 않다. 최근 4차례 대회 연속 톱10 입상 행진이다. 올들어 준우승만 세 번이다. 우승만 없다 뿐 최고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이번 대회가 지난해 쭈타누칸이 우승했던 곳이라 쭈타누칸은 타이틀 방어와 세계랭킹 1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다.

리디아 고는 전성기 기량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여자 핀수영 나란히 한국新

광주·전남 여자 핀수영 선수들이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국내 최강자 다은 실력을 뽐냈다.

16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보경(여·25·전남도체육회)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충남 아산시 방축수영장에서 열린 '제 16회 이충무공배 전국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3관왕에 올랐다.

핀수영은 돌고래 꼬리처럼 생긴 모노핀이나 오리발 같은 바이핀을 신고 수영장에서 규정된 거리를 누가 빨리 헤엄치는지 경쟁하는 종목이다.

김보경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표면 200m에서 1분28초84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시상대 맨 위에 올랐고 표면 400m와 계영 400m에서도 제일 먼저 결승타지페드를 찍었다.

신진희(28)도 여자일반부 잠영 400m에서 1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권혁민(27)도 남자일반부 표면 1500m 금메달을 따 전남의 일반부 종합우승을 견인



김보경

윤아현

했다.

광주시체육회 소속 윤아현(여·19)도 여자일반부 표면 800m 결승에서 6분 59초 90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가장 먼저 결승점을 찍었다. 윤아현은 지난 2015년 아시아 청소년대회에서도 핀수영 3관왕에 오르며 기량을 과시했다. 조민정(여·16·광주제고 1년)도 여고부 표면 800m(7분 19초 19)에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가능성을 인정받았고 표면 400m(3분 28초 92)에서는 2위를 차지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타이거즈 앓이' 필 친정 컴백 "한국서 선수생활 계속 하고파"

KIA 해외 스카우터로 '제2의 인생' 시작

"시즌 경기 다 봐...인터넷서 한국 라면 구입"

브렛 필이 '타이거즈 식구'로 돌아왔다.

16일 챔피언스필드에 반가운 얼굴이 등장했다. 지난 시즌까지 3년간 KIA의 '출자 외국인 선수'로 활약했던 필이 친정으로 결음을 한 것이다.

옛 동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은 필은 선수단 미팅에 참가해 인사를 나눴다.

필에게 특별했던 팀과 광주, KIA 선수들은 물론 관계자들에게도 필은 각별했다.

깜짝 등장한 필을 진심으로 반긴 사람들은 "웨이트 안 하느냐. 빨리 배팅하러 나오라"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필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두 가지다. 그리왔던 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야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다.

KIA와의 네 번째 계약이 불발된 뒤 미국 프로야구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 마이니 계약을 맺고 기회를 노렸던 필은 얼마 전 은퇴를 했다. 선수로서의 인연은 끝났지만 그는 미국 현지에서 KIA의 외국인 선수 영입을 위한 스카우트 역할을 맡게 된다.

"둘째가 한창 걸어 다니는 시기라서 아이를 쫓아 뛰다니느라 살이 빠졌다"고 웃은 필은 "잘 지내고 있다. 한국에서

의 좋은 기억이 많이 생각났다. KIA 경기를 다 봤다"며 근황을 이야기했다.

KIA 경기를 꼼꼼하게 챙겨보고 있는 그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한국 라면을 구매하기도 하는 등 한국앓이를 하고 있다.

그는 "마이니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이동 거리가 짧고, 가족들과도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선수들과 같이 이동하고 밥을 먹는 것도 좋았다. 사람들이 경기를 할 때 응원하고 노래를 불러주던 것도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선수생활을 마무리한 것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필은 타이거즈 식구로 새 야구 인생을 시작한 것에 대한 마음을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으면 계속하고 싶다"며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한 아쉬운 속내를 비친 필은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아서 어렵지 모르겠지만 타이거즈의 일원이 되어서 기쁘다. 22일에 돌아가는데 게임도 보고 선수들과 식사도 하겠다. (KIA 시절 살았던) 버들마을 주민들도 만나봐야겠다"고 웃었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



KIA의 해외스카우트 역할을 맡게 된 브렛 필(왼쪽)이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핵타와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덕아웃 T 특독

▲야구보다 노래를 더 잘해요

노래 실력이 공금한 4번 타자 최형우다. 16일 LG와의 홈경기에서 앞서 진행된 훈련 시간, 경기장에 흘러나오던 흥겨운 음악에 맞춰 음을 흥얼거리던 최형우. 노래실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야구보다 노래를 더 잘한다"며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최형우의 노래 실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시즌이 끝나고 진행되는 팬미팅 행사 '호랑이 가족 한마당'에서 노래 실력을 확인해볼 수 있는냐는 이야기에 최형우는 손

최형우 "야구보다 노래 더 잘해요"

2위 만난 김기태 "재미있게 해보자"

시래를 치며 훈련을 하려 했다.

▲윤이조

양현종이 "괜찮다"며 웃었다. 양현종은 지난 14일 SK와의 원정경기에서 시즌 8연승에 도전했다. 만약 이 경기에서 양현종이 승리투수가 됐다면 1986년 김일웅(삼성)이 기록한 8경기 8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 7회까지

등판을 소화한 양현종은 3-3의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오면서 8연승 달성에 실패했다. 이날 94개의 공을 던졌던 만큼 8회 등판도 예상됐었지만 김윤동이 양현종에게 이어 등판했다. 또 팀은 SK 김동엽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으면서 3-4로 졌다. 양현종은 "경기의 일부라서 괜찮다. 윤이기도 하다"며 새 마음으로 다시 승리 행진에 시동

을 걸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야구팬들의 눈길이 집중된 챔피언스필드다. 16일부터 시작된 KIA와 LG의 경기는 1위 팀과 선두 자리에 오르려는 2위팀의 만남으로 화제다.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흥미로운 승부. KIA 김기태 감독은 16일 경기 전에 가진 취재진들과 자리에서 "처음 대결을 할 때는 서로 어느 정도 전력일지 궁금했었다. 선수단 구성도 잘 되어있고 우리도 약하지는 않으니깐. 선수들이 재미있는 경기를 할 것 같다. 재미있게 경기를 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